여기 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재 규(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에벤에셀=도움의 돌(삼상 7:12)은 이스라엘과 불레셋이 싸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이긴 기념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비석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한국호스피스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지나온 역정(歷程)을 뒤돌아보면 회원들의 수고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보람과 기쁨의 여정(旅程)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입니다"를 외치며 섬김의 도를 실천해 왔습니다.

한국 호스피스협회는 회원 모두의 눈물과 땀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생명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동안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꺼져가는 생명들을 마주 대하며 생명사역에 동참해 주신 회원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회원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생명사랑의 사역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희망의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호스피스 사역의 은사와 사명을 재결집하여 전진하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